

막가는 정부산하기관 방만운영 실태

승진 대상자가 승진심사 비자금 조성, 노조에 항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95개에 대한 감사결과를 20일 발표한 데 따르면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집행, 계약, 사후관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경영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승진대상자가 승진심사 = 인사정책을 받고 입사시키거나 승진대상자가 승진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등 조직의 인력운용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A씨는 2004년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1급 승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자신을 1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이 회사는 4급인 B씨의 특별승진을 위해 19.5점이란 근무성적평점을 95.4점으로 조작해 3급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사장, 처장 등 간부들이 주변으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모두 16명의 신입사원을 부정 합격시켰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급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급별 정원 규정을 두지 않아 매년 과다 승진시킨 결과 2005년 12월 현재 책임급이 전체의 58.4%로 '몸통보다 머리가 큰' 기현상을 초래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5년 1월14일 주택금융부를 신설한 뒤 그해 7월 15명을 증원했으나 작년 3월 현재까지 업무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이나 출근않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기상여금 지급률이 400%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4년간 정원과 현원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이사회 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정기 및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모두 33억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재택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75%를 계속 지급해 2005년 재택근무자 임금으로 41억여원을 썼고, 2년1개월째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은 꼬박꼬박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석유제품관리원은 2002년부터 4년간 인건비를 58.1%나 올리고, 차량운행보조비를 연봉에 포함하고도 2004년에 차량운영보조비를 신설해 3년간 모두 9억1천400만원의 노면 돈을 삼켰다.

비자금 조성-개인용도로 쓰기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1년부터 5년간 기관홍보용 달력이나 소풍백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상의 내용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 받고 차액 1억8천57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분부는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2개 업체에만 입찰사실을 몰래 알려준 뒤 한국토지공사가 H지적측량사업단을 추천하자 3개 업체로 '비밀입찰'을 진행시켰다.

한미 FTA 오늘부터 추가 협상... 탐색전 시작

美, 노동·환경 분야 압박 할 듯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지재권 등 역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1일부터 사실상 시작돼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릴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측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탐색전 성격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미 '속셈' 탐색 = 정부는 우선 이번 협의에서 엔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등 미국 대표단이 21일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측이 지난 16일 통보한 7개 분야의 제안들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기존 타결문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노동·환경 압박 예상 = 미

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지난 16일 통보한 7개 분야의 제안들을 구체화해서 제시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추가협상에서 7개 분야 중 노동과 환경 분야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 5개 분야의 제안 내용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수준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7개 분야를 한정해 추가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과거 미

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사례를 볼 때 요구가 추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전문직 비자쿼터·지재권 등 역공 예상 = 추가협상이 나서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측이 11개를 달라고 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에 필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역제안 카드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숨기지는 않고 있다.



한미FTA 원천무효 촉구

대형 플래카드를 찢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결기대회에서 참석한 농민들이 정부에 한미 FTA 원천무효를 촉구하며

노-정 한미FTA 파업 정면충돌 하나

정부 오늘 담화문 발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를 위한 정치파업을 놓고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1일 정치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노정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2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은 21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3부 합동으로 금속노조의 한미FTA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이 목적과 절차면에서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을 지적하고 엄정 대처방침을 선언할 방침이다.

재계도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

동조합(금속노조)의 파업 계획을 한목소리로 성토했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0일 금속노조가 25~29일 예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금속노조에 파업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시장 102,289명 전남지사 153,852명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 가능

광주시장은 10만2천289명이, 전남지사는 15만3천852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과 기초단체장, 시·도·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자치구별 또는 선거구 내 읍·면·동별로 확정, 19일자로 공고했다.

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10만2천289명은 19세 이상 투표권자 수 총수 102만2천882명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수이다. 서명은 2개 자치구 이상에서 받아야 유효하다.

광주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서명인 수는 총 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동구청장 1만3천808명 ▲서구청장 3만3천200명 ▲남구청장 2만4천577명 ▲북구청장 5만728명 ▲광산구청장은 3만1천638명이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서명인 수는 ▲목포 2만2천587명 ▲여수 3만3천519명 ▲순천 2만9천197명 ▲구례군 3천555명 ▲담양군 6천280명 등이다.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해보니

도로·조폐·관광공사·기술보증 두각

토공·공무원연금순 순위 하락

토지공사·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의 경영평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공사·조폐공사·관광공사·기술보증·신용보증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전 장병만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 등 89개이다.

정부투자기관별로는 도로공사가 83.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

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순위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전년에 1위였으나 이번에 8위로 밀려났고 한국전력공사도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토지공사는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구의 지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14위에서 12위로 올라갔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한국농촌공사(13위)와 석탄공사(14위)도 최하위 그룹에 머물렀다.

사장 경영평가에서는 한국관광공사 8위에서 2위로, 한국수자원공사

■2006 정부투자기관별 경영평가

순위	기관명	작년 순위
1	한국도로공사	3
2	한국조폐공사	5
3	한국관광공사	8
4	한국석유공사	7
5	한국전력공사	2
6	동수산물유통공사	10
7	한국수자원공사	11
8	한국토지공사	1
9	대한주택공사	6
10	대한관광진흥공사	12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12	한국철도공사	14
13	한국농촌공사	9
14	대한석탄공사	13

가 12위에서 3위로, 철도공사가 14위에서 7위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위에서 9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위에서 10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위에서 15위로 각각 떨어졌다.

특색
고소하고 시원한 맛! 물회 '제주도 자리돔 축제'

회, 물회, 구이

점심식사 환영! 물회: 2만원 (2~3인기준)

제주도의 명물 이제 광주에서도 맛보실수 있습니다.
자리돔은 바다고기로 6월~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자리 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정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광 받고 있다.

● 자리 물회 ●

제주도바다

● 위치: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 단체예약문의: ☎(062)385-0807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KARCHER 독일가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운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RC 3000 로봇청소기, K 55 전기빗자루, VR 6100 전공청소기, SC 50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디럭스 스팀청소기, SC 1502 디럭스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